

중국, 내수확대 정책 본격화

상무부, 소매판매액 연평균 15% 늘려 ... 내수기여도 52%

중국이 내수 확대를 위해 소매판매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12차 5개년계획 기간 소매판매 촉진을 위한 지도의견>에서 2015년까지 소매판매 총액을 연평균 15%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2월7일 발표했다.

상무부는 소매업의 판매 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점포망의 재배치, 점포 총량의 합리화, 대형점포 육성, 전문시장 개발, 물류망 확대 등을 추진하고 중저가 백화점의 경쟁력 강화, 지역별 쇼핑센터 건설, 안전한 소비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인구 확대에 대응해 대기업 중심으로 인터넷 쇼핑과 전화 쇼핑, 휴대전화 쇼핑, 자동판매, 무인점포 등의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무부는 “소매판매가 고속성장 구조로 전환될 것”이라며 “앞으로 유명 브랜드가 생겨나고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소매업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출이 급감하며 경제 전체가 휘청거린 후 더 이상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로는 안정적인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해 내수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의 내수확대 정책은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생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GDP(국내총생산) 성장에서 내수 기여도가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의 20% 안팎에서 2011년 51.6%로 상승해 처음 50%를 돌파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2/08>